

최우역 열사 31주기 추모식



일시 : 2018년 9월 8일 토요일 12시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도읍 모란공원묘지내 열사묘역(010-4554-3074)
(교통편 : 9월 8일 10시 30분 동대문역 1번출구 동대문성곽공원 전세버스출발)



그대 우리 가슴에 살아

어두웠던 시절 우리는
 새벽아를 담은 의망을 품고 살았다
 강제로 입어진 퍼런 군복도, 시퍼런 죄수복도
 우리의 푸르디 푸른 의망만 돋보이게 알 뿐이었다

그때 너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
 거짓되이 살지 않겠다고 바로 잡겠다고
 온 몸으로 부딪혔고 남김없이 불살랐다.

단단한 들맹이에 깊이 새긴 글처럼
 그대 우리 가슴에 살아
 그 이름 떠올리면 가슴 우더워지기를
 그리고 이 길 지나는 모든 이들이 오래 기억하기를
 낡지 않은 열정으로 진실을 응시하는
 너의 부릅뜬 눈과 식지 않는 분노를 달래주려 널 양애
 강물되어 흘러간 네 어머니의 안타까운 눈물까지도

오래된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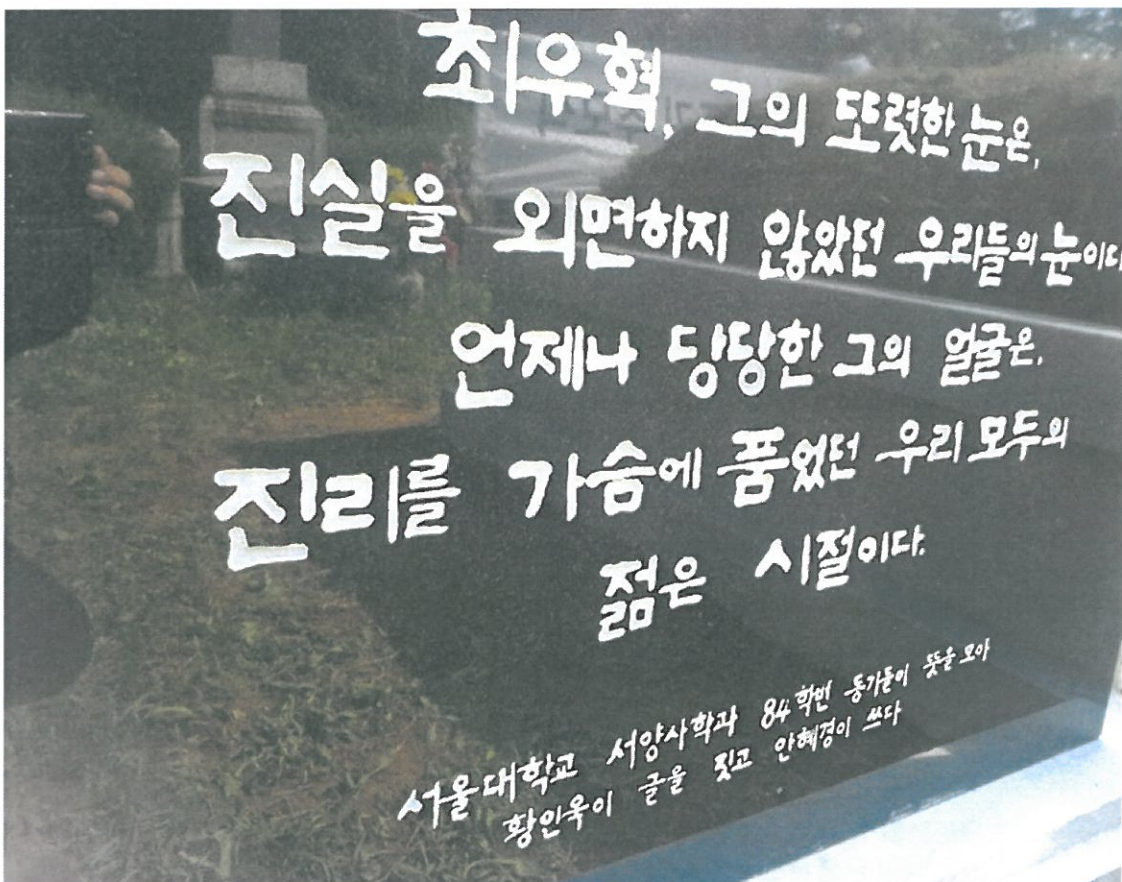
이것은 오래된 싸움이다
 여기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어머니들의 붉은 가슴을 보아라
 무딘 심장을 가쁘게 두드리는 아이들의 피맺힌 절규
 찢기 칼바람에 날리는 아버지들의 흰 머리를 보아라
 날이 갈수록 완아게 빛나는 아이들의 순결한 뜻
 불타는 안과 빛나는 유지가 심장과 머리로 부알했으니
 미인도 영웅도 고개 숙여라
 이것은 붉은 생명들의 가장 짙은 싸움이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다
 부패의 패당은 두려워야라, 마땅이
 추악한 연장을 덮으려는
 아아, 부질없는 가면의 가엾은 운명
 이것은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다
 독재의 잔당은 비껴서라, 당연히
 온순한 사람들 옥보이는
 우우, 짓밟은 만큼 짓밟일 가옥한 필연
 빛을 위해, 빛과 함께, 빛을 양애 그들은 걷는다
 그러니 어둠아 도망쳐라 어서 임껏!
 이것은 태국적부터 너의 조상들이 언제나 패배에 온
 바로 그 유명한 싸움이다



최우혁열사 약력 및 추모사업 경과

1) 약력

- 1966년 3월 서울에서 父 최봉규 母 강연임 슬아 3남 1녀중 막내로 출생
- 1984년 3월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입학
- 1984년 서울대내 '경계범악회' 가입
- 1984년 ~ 1986년 :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서서
전방입소 거부투쟁등 각종 시위와 집회에 참석
- 1986년 5.3 인천시위, 5월17일 '언제의회' 소집요구투쟁참가
- 1986년 5월 20일 서울대 민족예방계 기간중 이동수열사 분신 목격후 학내진입안
경찰에 맞서 싸우다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함
- 1986년 아반기이우 노동운동에 투신하기위해 연쟁활동시도등 노동현장으로 이전 준비
- 1987년 4월 28일 학생운동에 참가하다 구류를 살고 부상까지 당하는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강권에 의해 군입대 (육군20사단 60여단)
- 군입대후 대약제약시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인하여 보안대등에 의해 관찰대상으로 지목,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을 받음
- 보안대 관찰사실을 안 부대원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유격훈련중 심한 구타로
부상을 입음
- 1987년 9월 8일 민주화 활동에 대한 보안부대의 관찰, 공작 및 부대내의 구타등으로
최우의 양거수단인 분신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산화하신 것으로 잠정결론지어졌으나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지않은 의문의 상태로 남아있음.



2)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활동과 추모기념사업

- 열사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적 고민에 의한 분신자살로 규정지은 군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해 그 죽음이 민주화운동에 치열하게 투신하며 시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아던 대한민국의 안 짚은이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는 군내부기관(보안대등)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확신으로 동료들은 제대안 군동료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만남과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의욕예소를 위한 결정적 증언 확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 이후 군수사기관, 국방부, 국회, 대통령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진상규명요청을 하면서 '전국민적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민주화운동생신계승연대' '민족민주열사.의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과 연대하여 암울한 억압의 시대에 의생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외복의 제도적장치를 위한 법제정 투쟁 및 올바른 법시행을 위한 지속적 활동들을 전개해 오던중

- 2004년 6월 14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당소의 '진상규명불능'이라는 1기 위원회의 결론과는 달리 열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안대의 관찰, 공작 및 군내의 가혹행위등으로 최우의 항거수단인 분신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산화하였으며, 양우 열사를 둘러싼 보안부대의 구체적 공작내용을 조사하여 열사의 죽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열사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으며

- 2006년 7월 3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외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및 명예외복 결정을 받았음

- 2008년 2월 '명예외복심의위원회'의 열사의 민주화활동에 대한 공인과 의생에 대해 열사의 모교인 서울대에 다른 6명의 열사와 함께 명예졸업장 수여 권고하였으나 제적되어 규정에 맞지않다는 어찌구니 없는 영식논리로 수여 대상에서 제외

- 대약당국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대해 열사추모단체 /서양사 및 경제법학외동문회/ 서양사학과 재직교수등과 공동대응끝에 약교측의 규정개정으로 08년8월27일 졸업장 수여

- 2009년 11월1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4.19 역명부터 유신 반독재투쟁, 6.10항쟁까지 서울대출신 '민주열사'들의 추모 조형물을 돌아보면서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의미를 되짚어 볼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해 '민주화의 길'을 열었음

- 2013년 9월 서울대내 민주화의 길에 자리잡은 추모수 앞에 열사의 뜻을 알리고 추모하는 추모비 건립 (서울대내 5동에서 중앙도서관 가는 길 좌측)

- 2014년 8월30일, 열사를 추모하는 동지들의 뜻을 모아 최우역열사를 1987년 군부대에 의해 매장되었던 양주 운경공원에서 27년만에 어머니(본인의 강권으로 자식을 군입대시켜 겨 세상으로 먼저 보냈다고 고통스러워 아시다 안타깝게 안강에 투신아심)와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모여계신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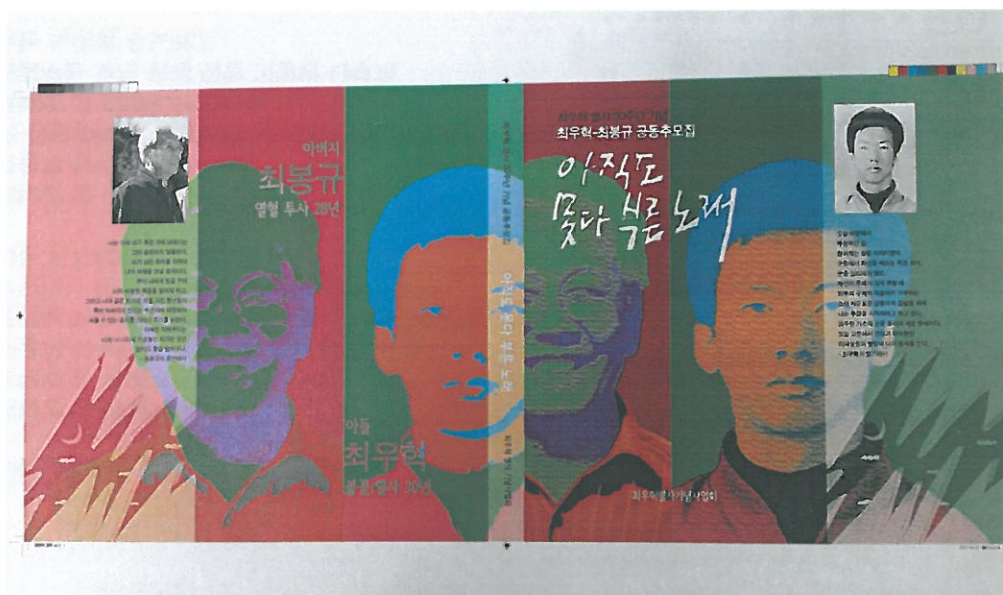
- 2016년 2월 10일,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29년의 세월을 의문사진상규명과 명예외복, 그리고 자식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열렬히 활동하시던 부친 최봉규아버님께서 영면, 모란공원에 안장되심.

- 2017년 9월1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짧은 삶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열사의 삶과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지들의 추억과, 그 죽음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안타깝이 죽어간 아들을 찾아 안강에 투신한 어머니의 눈물과 또한 아들의 꿈과 아내가 못다 찾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세월을 민주운동가로 활동하신 최봉규아버님의 삶과 투쟁을 '최우역-최봉규 공동 추모집'으로 발간함.

- 2018년 7월 국방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군의문사로 순직 결정 받음

※ 최우혁열사추모카페

(cafe.naver.com/westory2nd):위스토리(WE+HISTORY) : 외원가입 및 이용바랍니다
 (카페들어가는 법 : 위주소 입력 또는 naver 에서 '위스토리' 검색 : 공동추모집 등 모든
 자료들을 자유로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추모곡

이 산아에 (가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기나긴 밤 이었거든
 압궐의 밤 이었거든
 우금치 마루에 울리던 소리없는 통곡이어든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은들린다 예도
 부딪치는 겨 강을위에 아침햇살 흥순다 예도
 나는 눈부시게 않아라./

기나긴 밤 이었거든
 죽음의 밤 이었거든
 겨 삼월 하늘에 즐렁이던 피에물든 깃발이어든
 목메인 그 암성소리 고요이 어둠 깊이 잠들고
 바람부는 묘지 위에 취안 깃발만 나부껴
 나는 노여워 우노라./

폭정의 폭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살아 이 안을 뺏어겨
 이 붉은 산아에
 살아 예방의 뺏붙아래

기나긴 밤 이었거든
 투쟁의 밤 이었거든
 북만주 벌판에 울리던 거역의 밤 이었거든
 아아 모진세월 모진 눈보라가 몰아친다 예도
 붉은 이 산아에 이 안 목숨 묻인다 예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라.!

폭정의 폭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살아 이 안을 뺏어겨
 이 붉은 산아에
 살아 예방의 뺏붙아래
 벌거숭이 산아에

이 산아에

사곡 문승현

※ '이 산아에'는 열열청년 최우역이 대약시절에 목놓아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행사안내

1. 개요선언

- 1) 최우역열사 31주기 추모식 개요 선언
- 2) 민족민주열사 영령들을 위한 묵념
- 3)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2. 내빈소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족) 어머님, 아버님들 포함 유가족 및 운영실무진
- 민족민주열사.의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및 추모(기념)사업회
- 서울대 민주동문의 및 동문
- 서양사학과 학과 동문
- 경제법학외 서클 동문
- 그외 각계각층에서 오신 내빈들

3. 기념사업 경과보고 및 추모사 /추모시 낭독

- 최우역열사 기념사업 경과보고: 김지아
- 최우역 추모시 (그대 우리 가슴에 살아): 서양사학과 동기

4. 내빈 및 유가족 말씀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민족민주열사.의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 경제법학외
- 유가족대표 : 최종순

5. 마치는 노래 - 이 산아에

6. 분향참배 및 최봉규아버님/강연임어머니 묘소 인화

7. 점심식사

- 장소 : 모란공원입구 모란가든 (구 풀향기쌈밥) (031-591-4835)
(입구 들어오는 방향 좌측)